

## 제5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

친애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군의 막강한 위용을 보면서 국군통수권자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참으로 마음 든든할 것입니다.

온 국민과 더불어 건군 55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가안보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 군이 오늘의 '정예강군'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만들어 주신 창군 원로와 예비역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수고해 온 주한미군 장병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광복군을 계승한 우리 군은 분단과 전쟁, 그리고 끊임없는 안보위협 속에서도 국가방위의 사명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동티모르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 평화유지군을 보내서 세계인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선진강군'으로 성장하고 있습

니다.

평상시의 각종 재난을 극복하는 데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땀흘리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 군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신뢰를 표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최근 국내외 안보정세는 여전히 유동적이고 불확실합니다. 북한 핵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그리고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비롯한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라크의 안정과 전후복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어려울수록 튼튼한 안보태세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평화와 번영은 굳건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앞으로 10년 이내에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나는 임기 동안 이러한 자주국방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킬만한 국방력을 가지는 것은 자주독립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나라가 자주국방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에서도 떳떳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국가의 핵심적인 방어는 우리 스스로 담당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들지만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주국방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내일 당장 이루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안에는 자주국방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정보와 작전기획 능력을 보강하고, 국방운영 체계도 개선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현대전 양상에 대비한 인력의 정예화와 전력의 첨단화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보의 주체적 당사자가 되지 못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는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의 안보역량과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 바로 자주 국방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갑시다. 우리의 자주국방력이 커질수록 우방국과의 안보협력도 한층 더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는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한·미 동맹을 체결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한·미 동맹은 지금까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지키는 한 축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반세기를 넘어선 한·미 동맹관계는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을 실천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6·25전쟁에서 피땀 흘려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해 온 선배들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 한·미간에 용산기지 이전과 미 2사단 재배치를 비롯한 주한미군 재조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가운데 공동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간의 이러한 논의와 우리의 자주국방 계획을 바탕으로 장차 우리 군이 모든 전선에서 주도적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미국과 주한미군이 함께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안보역량을 착실히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군의 사기를 높이고 복지 여건을 개선하여 선진군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군의 사기와 복지 수준은 바로 우리의 국방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국방예산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

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에 비해 2.1% 증가시키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는 8.1%를 늘렸습니다. 물론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대로 우리 군의 사기와 복지 증진, 그리고 국방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고 또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병영시설 개선과 의료지원 확대를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군인임을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비역과 참전용사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전역 이후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취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부단히 스스로를 혁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식과 제도, 전력구조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개혁을 통하여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방부가 힘있게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이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정부는 미국이 요청한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론과 국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의 안보상황과 이라크의 내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병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확신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확신할 수 있는 보다 안정된 대화 국면의 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합니다. 아랍권의 정세와 이라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한 다음 파병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결정이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선의 선택' 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병문제가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이것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새로운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안보가 불안할 때 세계 어떤 기업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나는 취임 이후 미국과 일본·중국을 방문해서 북핵 문제는 반드시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그 이후 베이징에서 6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머지않아 2차 회담이 열리고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우리와 국제사회가 마련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핵개발을 포기하고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북한과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성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한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를 함께 열고, 그 혜택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친애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군인의 길은 힘들지만 명예로운 길입니다. 조국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은 무엇보다 값지고 영광된 일입니다. 여러분의 능름한 모습에서 큰 힘과 용기를 얻습니

다. 우리의 안보태세에 한치의 빈틈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평화와 번영, 그리고 도약의 시대를 열어 갑시다. 동북아의 중심에 우뚝 선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다 함께 열어 갑시다.

다시 한번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여러분의 무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